

OPINION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데스크칼럼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직장인들에 '워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답답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또 예술을 직업으로 가진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전업화가나 전업문인 등 예술가들이 주 4일 창작에 전념하고 3일을 쉬 수 있다면 마다 할 예술인은 없을 것이다. 전업 예술가들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4일 근무제는 꿈의 제도 그 이상일 것이다.

정지권에서 민생제로 주4일 근무제가 잊힐만하면 제기되곤 한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시국에서 조기 대선은 가장 큰 이슈다. 아마 탄핵심판이 내려지고 정권이 교체돼야 할 사유가 발생된다면 주4일 근무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다. 직장인들에게 '하루 일 탈하고 하루 더 쉰다'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늘 논쟁의 여지는 있었다.

가령 매달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면 하루 덜 일할 경우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등이 관건이다. 경영자 쪽에서는 하루 덜 일할 만큼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무슨 소리 하나며 참여하게 맞설 우려도 있다. 주4일 근무제는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아차피 선진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면 이

'워케이션'을 읽는 현시대의 문법

번 시국의 가능자를 봐 가면서 전국민적 토론 주제로 끌어올려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이는 정치권에 서 주4일 근무제를 언급했기에 하는 소리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워케이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고 풀이한다.

필자가 사회 초년생에 접어들었던 무렵에서 현재 3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직장 인적 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상명하복의 직장문화가 개선됐다든 점이다. 대가 없이 노동력을 요구하는 시대와 단절된 점 또한 긍정적이다. 몇몇 특수한 직군을 제외하면 이런 직장 문화 풍토가 빠르게 개선돼 안착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떠올려보면 30대 때는 직장 윗분들이 하라는 업무 지시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해내야 하는 것이어서 수행을 해내는 쪽으로 늘 결론을 내렸다. 직장인이기에 업무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다만 불운한 것은 필자가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했기에 심적 부담감이 컸던 기억이 새롭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 소화불량은 일상사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니 되 돌아보면 이렇게 어려운 직장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신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늘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이제 정년이 멀지 않은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무탈하게 현재까지 버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할 따름이다.

필자 역시 금요일을 쉬지 않는 주6일 근무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처음 주6일 근무제에서 접한 주5일 근무제는 한편으로 좋으면서 낯설기 이데 없었다. 마치 내 옷이 아닌 듯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6일 근무를 어떻게 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주4일 근무제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회적 논의가 의외로 더디기 때문에 그렇다.

50대 직장인으로서 새로운 세대들이 속속 직장에 진입하고 있다. 아주 젊은 직장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낯선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을 함부로 해서도, 일을 밀어부쳐도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울드보이가 됐지만 이런 직장문화의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필자가 다니는 직장은 일요일 근무를 하기에 오전부터 정신이 없지만 정년 후 달콤할 일요일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필자의 세대는 흔히 먹고 품었던 세대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했던 대표적 세대이기도 하다. 아마도 직장문화의 변화 때문에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이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기간 급부상했지만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사전 학습 줌으로 치부되는 것은 옐일까.

여전히 근무 외 시간으로 자주 넘어오는 업무가 있어 혼란스럽지만 알아서 일과 휴식을 조화시켜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워케이션과 거리가 먼 직장인들 모두 건사를 바란다. 아울러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전업예술인들의 '워케이션' 또한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기고

김민정

한국공기안전원
교육·인증센터 연구원



병원시설 내 클린룸 보급 필요성

성할 수 있고 주변 공기에 비해서 1000에서 1만배 이상 깨끗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환자의 회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약자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를 하면서 회복하는데 있어 공기 중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침상 주변의 부유먼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부담이 줄고 클린룸 침구 교체만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질 개선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기정화기의 심장인 HEPA필터의 성능이다. 고성능 HEPA필터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테스트를 통과해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성능이 확인된 HEPA필터는 바이러스 및 극초미세먼지를 99.97% 이상 제거한다. HEPA필터는 고효율 미립자 공기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로 0.3µm 에어로졸 입자를 최소 99.97% 이상 포집하며 0.3µm 입자보다 작거나 큰 입자를 더 높은 효율로 포집할 수 있는 필터다.

바이러스, 폐렴균, 박테리아 등 공기중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HEPA필터에는 성능이 검증된 HEPA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필터등급은 HEPA TYPE A이며 미국규격 MERV 17등급이며 미국규격인 ML-STD-282로 시험이 진행된다. 클린룸 등급시험(적용시험 ISO 14644-1) 결과 클린룸 5등급 수준의 공기청정도를 확인 받았다. 1인용 HEPA 클린룸의 HEPA필터 교체주기는 장작팬 차압계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또한 필터 수명은 평균 2년, 최대 3년으로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1인용 개인 맞춤형 클린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병원 내 감염예방 및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다. 환자가 재입하는 공간 내에 1인용 HEPA 클린룸을 설치해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을 걸러내어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1인용 HEPA 클린룸의 적용방법은 침대 주위를 감싸는 PVC 소재의 텐트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HEPA 필터 포함된 양압 시스템을 통해 텐트 내부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고 정화된 공기만 유입되도록 만든다.

어느 곳이나 클린룸 5등급 수준의 공간으로 조성 가능하기에 의료진의 접근성 및 환자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 공기 질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해 실내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도록 추가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1인용 HEPA 클린룸을 통해 실내를 클린룸 5등급 수준으로 조성하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회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병원이나 특수 시설에서 적용할 경우 맞춤형 설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설계 컨설팅 등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있다.

오는 20~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는 주식회사 줄의 세이프를 사업부의 1인용 HEPA 클린룸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의료와 친환경 의료폐기물 시설, 아름다운 건축기술로 지어진 첨단병원 시설, IT 기술과 접목된 의료 정보 시스템, 신축한 환자 수송을 위한 자동차 산업 등 의료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기술, 신제품을 통해 융복합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회에 본다.

취재수첩

이승홍

지역사회부 부장대우



봄꽃

나무가 있다고 한다. 3월 초순이 되면 매화나무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는데 이 시기 이 마을에서는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열린다. 지난 7일 개막한 이 축제는 열흘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1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매화의 뒤를 이어서 피는 꽃은 산수유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군 산동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수유나무가 있다고 한다. 산수유는 산속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봄이 오면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며 따스한 계절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봄의 전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노란색은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색깔로, 산수유꽃이 만개하는 순간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와도 같다. 산수유 꽃이 한창 피는 3월 중순에는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열린다. 지난 15일 개막한 축제는 산수유꽃을 특화한 5개 부문 24개 종목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매화와 산수유가 지고나면 벚꽃이 흐드러진다. 섬진강 따라 펼쳐진 벚꽃길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구례는 벚꽃 명소 중 명소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시천체육공원 및 문척면 일원에서 열리는 구례 300리 벚꽃축제는 국내 최장 벚꽃길인 129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결국 봄은 왔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쫓아오는 게 봄꽃이다. 이번 주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봄꽃 거두러 남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사설

사교육 열풍 여전...대책마련 절실

광주·전남의 사교육 열풍이 여전하다고 한다. 지역 학생들은 물론 영유아까지도 80% 가까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8.2%로 집계됐으며 초등학교가 84.8%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77.3%), 고등학교(67.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3000원이나 됐다. 1년에 학생 1인당 495만6000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71.7%)도 70%를 넘겼다. 초등학교가 82.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70.1%), 고등학교(53.6%)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나, 농촌의 경제 규모를 따져보면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서 만 5세 아이들 10명 중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월평균 사교육비가 33만2000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문제는 사교육을 받는 인원과 시장이 각각 갈수록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사교육 인원과 매출이 30만2000명에 19조4000억에서 2021년 36만7000명에 23조4000억원, 2022년 41만명에 26조원, 2023년 43만4000명에 27조1000억원, 2024년 47만4000명에 29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책에서 "많은 한국 학부모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므로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한 시점이다.

프로축구 광주FC 선전 경이롭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무대에 오르는 세력을 썼다.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ACLE 16강 2차전 비셀고베(일본)와의 경기에서 3-0 완승을 한 것이다. 이번 16강전은 홈팬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광주는 지난 일본 원정 1차전 경기에서 0-2로 패해 탈락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3골을 몰아치는 대역전극을 펼쳐 1-2차전 합계 점수 3대 2로 앞서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역대 시·도별 구단 중 ACLE 무대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이며 이번 승리로 출전료(80만 달러), 16강진출(20만 달러), 8강진출(40만 달러), 승리수당(40만달러) 등 총 180만 달러(26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함께 ACLE에 진출했던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했다.

사실 광주FC의 선전은 경이롭다. 2010년 창단해 K리그 2011시즌부터 참가한 후 지금까지 2부 K리그 챌린지로 3번이나 강등될 정도로 그리 강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 출전한 선수마저도 다른 구단에 이적시키며 근근이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의 성적이 강등권인 하위권에 머무른 것이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K리그에 겨우 겨우 생존했던 광주FC는 2013년 처음 2부리그로 떨어졌다 강등 2년만인 2015년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왔다.

감독의 적절한 전술과 선수들의 패기 등으로 2017시즌까지 K리그에서 살아남다 2018년 다시 강등됐고 2020년 2년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지만 얼마 못가 2022년 다시 2부리그로 떨어졌다.

이 때부터 팀을 맡은 이정호 감독은 특유의 리더십과 전술 구상 등으로 K리그 2 최다 승리, 최다 승점이란 신기록을 작성하며 광주를 2부 리그 우승을 시켰다.

그의 용병술은 K리그로 돌아온 2023 시즌에도 빛나 팀을 역대 최고 성적인 정규리그 3위로 이끌었고 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했다.

ACLE는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판 승부로 8강전 등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광주가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거둔 성적만도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건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